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61)

決繫囚

결계수

간혀 있는 죄수를 판결하라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요즘 TV를 틀면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뉴스의 태반을 차지하는 느낌이다. 죄가 있었다느니 없었다느니 각기 주장도 다양하다. 그것도 한두 번이면 새로운 소식인가 하고 듣겠지만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연중무휴로 뉴스 시간을 장식하니 짜증이 나서 뉴스를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다.

제대로 된 사회를 구현하려면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말하자면 처벌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러한 통계를 나타내 아닐까? 그래서 역사서(歷史書)에는 지방의 주현에서 옥공(獄空), 즉 처벌받는 죄수가 하나도 없어서 감옥(監獄)이 텅 비었다고 보고하면 그 주현에 상(賞)을 주었던 기록이 남아 있다. 감옥이 텅 비었다는 것은 정치를 잘했다는 방증(反證)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관이 상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감옥이 텅 비었다고 보고하는 예도 있었지만.

각설하고 송사(宋史)를 뒤져 보면 옥공이라는 말이 77번 나온다. 요사(遼史)에는 10번, 금사(金史)에는 5번 나온다. 정말 이 만큼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러한 통계로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면제해 주는 사면령(赦免令)이 있다. 이는 죄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조치이다. 예컨대, 새로 황제가 등극했다든지, 황태자가 태어났다든지 심지어는 황제가 병이 들었을 적에도 사면령을 내렸다. 이 경우라면 황제가 그동안 죄 없는 사람을 가두었는데, 그 죄 없는 사람을 풀어 주어서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 보려는 속셈이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황제의 통치행위는 결국 정치 행위였다. 형벌권을 가진 사람이 그 형벌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편으로 돌려 보려는 정치 행위이다. 그러면서 이 사면령을 통하여 황제는 백성을 아끼고 은덕을 베푸는 사람으로 각인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사면령과는 조금 다른 형사 조치가 있다. 이른바 '결계수(決繫囚)'라는 명령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판결을 하라는 말이다. 이는 죄가 있다고 잡아

다 감옥에 집어넣고 미결수(未決囚)인 상태로 내버려 둔 사람들을 빨리 판결하라는 것이다. 판결을 하라는 말은 죄를 없애 준다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정도 벌을 받을 죄를 지은 것인지 결정해서 벌을 받을 것이면 받게 하고, 벌을 받은 일이 아니면 풀어주라는 뜻이다.

속자치통감에는 남송 효종 건도 9년(1173년) 윤 정월 9일에도 결계수의 명령을 내린 기록이 있는데, '오래도록 비가 내리자 대리시(大理寺)·삼야(三衙)·임안부(臨安府)와 양절(兩浙)지역에 있는 주현(州縣)에 명령을 내려서 갇혀 있는 죄수를 판결하게 하고 잡범(雜犯)들이 범한 사죄(死罪)를 한 등급 감감하고 장형(杖刑)에 해당하는 죄수는 이를 석방하였다.'라고 하였다.

간혀 있는 죄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할지를 빨리 판결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는 각 주현에서 당연한 조치하지 않는 일이 많다는 방증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 명령은 갇혀 있는 사람에게 죄를 사면해 주라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은전이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죄 없는 사람이 어떠한 연고로 갇힌 상태에서 판결해 주지 않는다면 죄 없이 갇혀 있는 셈이니 이들에게 판결을 늦추는 것은 바로 형벌의 연장이다. 그래서 갇힌 죄수의 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전이다.

효종은 명령을 왜 내렸을까? 오래도록 비가 내려서이다. 비가 오래 내린다는 것은 흉수가 날 수 있다는 다른 말이기도 하다. '장마와 재판이 무슨 관계냐'라고 하겠지만 이 시절 사람들은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 억울한 원한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노하여 비를 내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무서워한 셈이다.

그러면 하늘이 노여워했는데, 왜 미결수를 없애라고 했을까? 관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인가로 엮어서 일단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시절이었기에 미결수를 없애는 것이 곧 덕정(德政)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즘에는 재판을 늦추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가 그

렇다. 선거는 유권자의 의견을 받아서 공직을 맡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견이 왜곡되지 못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동시에 선거 규정을 어긴 선거사범의 경우에 일정한 형량 이상이 나오면 당선되었던 사람이라도 그날로 직을 그만두게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거사범은 6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선거재판은 뜬금없다. 어떤 사람은 선거가 끝나고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재판이 그의 임기 4년 동안 진행되지 않아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된다고 하여도 이미 그가 처리하였던 공자로서는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재판을 늦게 한 것이 그 당선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그 판결문이 아무리 훌륭한 논리로 공정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재판은 아무런 의미 없는 잘못된 재판이다. 부정한 사람을 가려내지 못하여 그 부정한 사람이 임기 끝날 때까지 공직을 수행하였다는 유권자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반면에 규정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어 공직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일야 당연함에도 재판을 미적거리면서 질질 끌어서 임기를 다 마치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당연한 벌을 받는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사람의 재판을 일찍 처리하고 어느 사람의 재판은 질질 끈다면 이러한 사법권의 운영이라면 이미 판결문이 아무리 고상해도 속임수인 셈이다. 무슨 힘이 그렇게 작용했을까? 사람들은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의심한다.

전에 우리 사회의 형사제도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유행하여 사법부(司法院)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게 하였는데, 이제 선거사범의 판결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에서 그래도 믿은 것은 사법(司法)이었는데 그마저 신뢰가 무너졌으니 이 백성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가다

권용만 교수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 소생의 나이 칠십 세에 성균관을 들어가다. 평생의 바람이 있다면, 소생도 적지 아니한 날들을 학업에만 정진한 바 있어서, 소생은 대한민국 학문기관의 효시요,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유림의 종본산인 '성균관'을 한 번 둘러보는 일이다. 그러나 긴 외국에서의 교수 생활(무려 19년 동안 5개국)로 시간과 기회가 전혀 없었다.

소생이 알기로는 공자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인생 칠십 고희의 나이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하시어서 인생의 말로가 참 북이 되셨다는 그 말씀대로, 소생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해외에서 5개국 교수 생활을 은퇴하고, 미련 없이 나의 조국으로 귀국한 이래로 사회적 인성(人性) 강의 및 법무부 교도소와 준법센터에서 재소자와 예비 죄수를 상대로 참다운 사람의 길인 인성(人性) 강의와 경기 북부 15개 소방서의 PTSD, 심리 치유 강의, 서울시 아파트 층간 소음 해소방안 강의 등등에 소생이 가진 철학과 심리학의 전문학문 아래서 열심히 강론하고 있는 바,

2023년 초에 원치 않은 대장암이라는 중병이 소생을 찾

아오시었다. 그러나 소생이 누구인가? 큰 병마와 싸워서 일곱 번을 승리하여 건강을 회복한... 그야말로 질병에 대하여는 '백전노장(百戰老壯)'이 아니던가! 지인들이 하시는 말씀, "권 박사는 불사조(phynics)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소생이 이겨낸 병만 계산하면, 병력이 총 7번이다! 고로 지금이 '칠년팔기(七巔八起)'한 셈이다. 2003년 위암을 필두로 암이 2번, 허리 협착증 수술 2번, 오른쪽 고관절 수술 2번, 급성패혈증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2번으로 5일과 8일을 코마로 죽었다.

다행하게도 천지신명의 도우심으로 이번 대장암이 3기 A 단계여서 주치의 교수님이 8회 항암을 계획하였다가 4회로 경과가 좋아서 이제 멈춰 주셨다. 그런데 맹자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거둬내면 반드시 좋은 일에 사용하리다'는 그 구절이... 소생은 한 2-3년 간 강의로 바쁜 가운데서도 한학과 동양철학의 정통성을 공부하기 위하고, 예의법절의 도덕을 공부하려고, 연천 향교의 향배에 열심히 참여하여 참인간의 도리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인간의 오상(五常)의 덕목을 향교의 어광문 전교님을 비롯하여 前, 前, 전교(典教) 어르신들로부터 크게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슨 기상천외한 일로! 이 무슨 소생에게 과분한 영광이란 말씀인가요? 인생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Dream come true')!는 말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토록 가서 보고 싶었던 서울의 성균관에 임원으로 추천이 되었다 하신다. 하늘을 날 듯이 기뻐서 혼자 집에 와서 춤을 다 추었다. 앞으로 주어질 품계(品階)는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총명하고, 학문에 조예가 출중한 관장님을 비롯하여, 인성의 훈련이 고도화된 선비님 및 학자 어르신들을 뵈옵는다는 기쁨이 추천을 받고 며칠이 지난 오늘 이 글을 쓰는 시간에도 소생의 안면에 밝은 미소를 머금게 한다.

저 훌륭한 분들의 덕성과 학문을 배워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다 더 알차고 빠르게 이사회들의 비뚤어진 사람들의 왜곡된 인성과 참 바른 교육이 없어서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빠진 영혼이 정말로 불쌍한 이들의 정신을 바로잡아 드리는 참 영혼의 소리가 담긴 참 선비적 강의를 좀 더 열성적으로 하리라 다시금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짐해 본다.

비빔밥의 유래와 종류(1)

청개(靑苔) 권오진(부정공파, 35世)

비빔밥은 1800년 말엽에 발간된 요리서인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부빔밥으로 표기하였으며 한자어로는 골동반(泊童飯)이라 하였는데 골동이란? 여러 가지 물건을 한데 섞은 것을 뜻하며 이미 지어 놓은 밥에 여러 가지 찬을 섞어서 비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비빔밥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음복설은 제사를 모시고 나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빠짐없이 먹는 것을 음복이라 하는데 동제나 산신제 등 집에서 먼 곳에서 지내는 제사의 경우 편의상 그릇 하나에 여러 가지 나물을 담아 비벼 먹는 것이 비빔밥의 유래라는 설이다. 둘째, 궁중음식설은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라는 흰수라,

팔수라,오곡수라, 비빔 등 4가지가 있으며 비빔은 점심때나 종친의 입궐 때 가벼운 식사로 이용되었다는 설이다.

묵은 음식 처리설은 설날 그믐날 새해 새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묵은해의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밥과 나물을 비벼먹는 것이 비빔밥의 유래라는 설이다.

셋째, 농번기 음식설은 바쁜 농사철 여러 번 음식을 차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그릇 하나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는 것이 비빔밥의 유래라는 설이다.

넷째, 임금 몽진 음식설은 고려 때 몽고의 침입으로 임금이 몽진 중일 때 수라상에 올릴만한 음식이 없어 몇 가지 나물을 밥과 비벼서 올렸다는 몽진설이다.

이와 비슷한 동학혁명설 등이 있지만 비빔밥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비빔밥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음식이다. (다음호에 계속)

<2023年 8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7.27. ~ 8.29.
총 납부자 23명
지사·지국 1곳

(이름순)				단위:원	
권경조(서울성동)	권부중(고흥)	권영철(서울용산)	권재일(서울종로)	권태복(서울금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안(용인)	권승찬(용인)	권오길(경주 서부동)	권준식(용인)	권태인(서울강동)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익(안동)	권영대(익산)	권오륜(경주)	권중욱(서울서대문)	권혁겸(서울광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덕근(서울동대문)	권영조(봉화)	권오철(서울노원)	권찬달(영덕)	지사지국 납부지역	
30,000	30,000	30,000	30,000		
권돈원(대전)	권영채(예천)	권오홍(경기군포)	권춘택(영주)	대전 참의공중중	
30,000	30,000	30,000	30,000	50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총 1,190,000원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중회 사무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종보 구독 및 협찬 안내

국내외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남녀 및 안동 권문으로 입적된 부(婦)는 누구나 안동권씨 대중회 회원입니다. 종보는 1974년 12월 1일 창간된 이후 50여 년 동안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로서 안동권씨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인문정신과 학문적 유산, 후학들의 지혜를 모아 매월 1일 자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종보 협찬금은 1년에 3만 원이며, 종보 발전을 위해 기금이나 광고 등으로 협찬하실 분은 대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대중회 사무처 : 02-2695-2483
▶ 이메일 주소 : andongkwonmun@daum.net
▶ 예금계좌 : 국민은행 계좌(033237-04-006772)

안동권씨 대중회